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의거 독립운동가 유동하(劉東夏)

1892년 01월 05일 생으로 1918년 가을에 순직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안중근의 의거 과정에서 유강로(柳江露) 또는 유관오(劉寬五)라는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7세의 나이에 안중근, 우덕순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참여하여 여정을 함께했고 사후 공범으로 체포됐다. 출옥 후에는 사회주의 혁명군으로 활약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짧은 생애를 바쳤다. 198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력

1892(고종 29)년 1월 5일 생으로 함경남도 원산 길명(吉明)에서 경집 유승렬(敬緝 劉承烈)과 함흥 군수의 딸 강씨의 사이에서 4남 2녀 중 장남이다.

1907년 포그라니치니에서 70여 리 떨어진 모구 하촌에 살고 있던 허희명(許熙明)의 딸과 결혼한 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거에 동행하게 되었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에게 이토의 도착일시를 미리 타전해 살인을 방조한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11년 8월 15일에 조도선과 여순감옥에서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8월 22일 석방.

1912년 2월 부친 유승렬과 함께 톰스크 (옴스크)로 이주하여 약국 개설,

1917년 봄, 부친과 함께 싸말리아(남부 러시아의 사마라), 연해주의 사마르가(?)로 들어갔고 가족은 김성백이 있는 이르쿠츠크로 이주하였다. 볼셰비키 혁명군에 가담하여 백군과의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8년 가을, 시베리아에 주둔한 일본군에 의해 청년 11명과 함께 체포되어 싸말리아 강(사마라강?, 사마르가강?)의 강변 교두보(橋頭堡)에서 총살되었다.

가족 관계

외조카인 시인 김파(조선족 시인)에 따르면 부친인 유승렬(劉承烈)과 부친의 형인 유태렬은 본명이며 묘금도 유(劉)씨라고 한다. 본관은 강릉 21세손이 0렬(烈)자 항렬자를 사용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하(劉東夏)는 강릉 유씨 22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파(75) 시인은 최근 한국에서 대하소설 『흑색 태양』(전 3권, 도서출판 백암)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그와 가족들의 100년사이다.

시인 김파의 말에 의하면(인터뷰 내용)

■ 내가 처음 <송화강> 잡지에다 "유동하와 그 동료들" 제목으로 안중근과 유동하가 같이 할빈 역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하는 전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그대로다.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온 한국 교수가 이 잡지를 보다 이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우리 어머니 전반 이야기 다 듣더니 대단히 감동하더라.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하고 직접 연관돼 살아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때 돌아가면 한국의 유씨 종친회 회장을 만나서 우리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끔 연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더라.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요청장 보내왔다. 그래서 1986년도 봄에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내하고 돌아왔다.

당시 유창순 전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술한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때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 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강연대에 서서 아마 한시간 동안은 이야기했을 거다. 어머니가 원래 이야기를 잘 하신다. 후에 텔레비전으로 10여분 되게 내보냈다. 그런데 나를 자꾸 데려다가 강연시키더라.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자꾸 그러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했다가는 돌아가서 정치범으로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야기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에서 강연을 2시간쯤 했고, 그게 소식이 퍼져서 사방에서 요구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랬다.

□ 당시 한국에서 유동하 선생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 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어머니하고 토론했는데, 유동하는 러시아에서 희생됐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열사(烈士)증을 (훈장) 탈 수 없고, 한국에서도 주겠는지 안 주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국의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 써서 보내봐라. 혹시 줄 런지 어떻게 아냐?”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썼다. 유동하에 대한 사실 쪽 쓰고 “훈장 못 주겠는가?” 그랬더니 며칠 후에 대답이 내려왔는데 대통령께서 지령을 내렸는데, “해외 교포이지만 주라”. 그게 계기가 돼서 그 후부터 해외 교포 다 주게 됐다. 상장은 규정된 날이 있다더라. “2년마다 한 번씩 주는데 명년에 주니까 그때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타라.” 보훈처의 총 책임자가 찾아와서 쪽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 후에 폴란드에 있는 유동하 동생 유동주가 그걸 타가지고 갔다.

□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참여한 유동하 선생의 후손으로 안다. 100년의 역사를 3대에 걸친 가문사로 썼는데, 유동하 선생과 이 소설의 관계는?

■ 유동하는 우리 어머니 오빠다. 소설에도 나오는데, 유동하 부친 유승렬은 1898년에 러시아로 이주해갔다. 아주 유명한 중의(中醫)였다. 그때 해삼위, 지금 블라디보스톡에는 우리 민족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요청해서(받아서) 거기를 가서 의사 노릇하게 됐다. 그런데 하루는 안중근이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찾아왔다. 유세하면서 시베리아 일대를 돌면서 감기 걸려 왔다. 우리 외할아버지네 집에 눌러 있으면서 한쪽으로 약을 달여 마시면서 한쪽으로 나라 형세 이야기를 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마 한 여섯살 쯤 됐을 거다. 그런데 앞에서 먹을 갈아주면 안중근 의사가 붓글씨도 쓰고 그랬던 모양이다. 그래서 귀엽다고 하면서 각 전을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눈깔사탕을 싸(사)다가 입에다 하나씩 다 넣어주고 웃고, 앞에서 노래하라고 해서 독립 노래 부르고, 아주 귀엽다고 그랬다.

유동하는 수분하 쪽에서 러시아 철도고등중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유동하가 러시아의 첼로보(첼로신문)를 가져왔다. 이등박문(伊藤博文), 이또 히로부미가 어느 날 할빈(하얼빈)역에 도착해서 러시아 대신과 담판하러 온다는 소식이 거기에 간단하게 실렸거든...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말야는 사람을 하나 구해야겠다”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들렸다. 그래서 “야를 데려가라”. 그래서 우리 유동하 삼촌이 따라 나선 거다.

□ 유승렬 의원 등은 모두 본명을 쓴 건가?

■ 다 원명 그대로다.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 유승렬이 쌍둥이다. 형님은 유태렬이고. ‘모금 두 류(劉)’, 유소기(劉少奇) 유자다. 우리는 거기(연변)서는 류라고 한다. 여기서는 유라고 하더라.

※유소기(劉少奇)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 정치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제2대 국가주석 및 국가 부주석, 중공중앙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약진 운동 이후 마오쩌

등의 노선을 비판하며 덩샤오핑과 함께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했고 파탄상태였던 중국의 경제를 급속도로 회복시켰지만 마오쩌둥으로부터 수정주의자로 매도되어 숙청당했고, 문화대혁명 중에 홍위병들의 박해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마오쩌둥과 함께 Chairman(주석) 직위를 가진 둘 뿐인 인물이다.

□ 선생은 직접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안중근 의사와 유동하 의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나?

■ 다 어머니 말씀이다. 90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됐다. 늘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 이걸 썼다.

□ 가족은?

■ 5남매인데, 내가 가운데 남자 하나다. 원래 맨 위 맏이가 남자 있었는데, 광복 전에 조선으로 나왔다. 어느 군관학교인가 거기 댕긴다 하더니 후에 종무소식이다. 지금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그저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 밖에 없다.

□ 안중근 의사와 유승렬 의원과의 관계로 시작돼 유동하 선생으로 이어진 인연인데, 이번 대하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 이걸 왜 쓰게 됐냐면, 기본 동기가 지난 시절 어머니가 생존할 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쪽 하면서 “너 밤낮 글 쓴다고 하는데, 이걸 꼭 글 써라” 하고 그냥 말씀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이야기 잘 한다. 그러나 후에 쓰겠다고만 했다. 후에는 우리 형제들도 “너 밤낮 글 쓴다면 이런 가정소설도 안 쓰고 뭘 하는가?” 촉탁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촉탁에 의해 쓰려고 결심했고 우리 가정 경력이 대단히 특수해 특수성에 힘을 입었다. 이걸 소설재료인데 꼭 써야겠다 결심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다. 우리 가정이 6국에 흩어져 살았다. 일본, 조선, 중국, 러시아, 폴란드,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전부 경과한 거다.

■ 가족사항

부친의 쌍둥이 형: 유태렬

부친: 경집 유승렬(劉承烈)

모친: 강씨

여동생: 유씨(1904?-1990)

여동생의 아들(동하의 조카, 조선족 시인): 김파 (1942.12. 06-2017. 12.28)

남동생: 유동주(유승렬의 3남 劉東周, 1907-1988)